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사람이 떠난 후, 눈시울이 붉다(1)

참, 좋았습니다. 박주용 시인은 충북 옥천 창산 출생으로 2014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시 '옹이'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양애경 시인은 '차분하고 과묵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활약가'라는 평을 받았다. 그는 목소리가 높지 않고 예의 바르고 정돈을 지키지만 약하지 않은 사람이라 소개한다. (박주용, 위의 책, 104쪽. '복을 잃는 약한 것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

시인은 자서(自書)에 장다리꽃 몇송이 피었습니다 / 이 땅의 속눈썹 습한 / 배추 흰나비들에게 / 잔잔히 나타 위안이 되는 / 그런 꽃이면 / 참, 좋겠습니다(박주용, 위의 책, 5쪽)라는 시를 통해 작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나아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소소한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공감과 배려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있다.

박 시인의 바람처럼,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잔잔히나마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 꽃'이 많이 피어났으면 참 좋겠다. 사람이 떠난 후 조용함의 시작은



박 여 범

충북 옥천 출생 / 시인 ·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바로 '사람'이다. 방학이 시작되었다. 학교가 조용하다. 기숙사에도, 교실에도, 운동장에도, 체육관에도, 교무실에도, 사람의 온기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학교 뒷마당은 더욱 한적하다.

시골길을 걷으며 만나 수 있는 길아 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럴 때 달려오는 길정은 허무와 체념이 공존한다.

사람이 떠난 후로 까치가 문과 달고 주인 행세인 미당 길은 시골집 시간의 무게 견디지 못한 나무들 덩굴에게 자리 내주고 있다 돌에 숨 들어넣는 일 하는

첫째도 바람 부는 날 골라 집 짓는 둘째도 겨울없이 바닷나 보다 고추장 발라 빨랫줄에 널린 침묵나무 아직 숨 들어 있는지 가지 끝 글썽인다 앵무나무, 자목련도 가시박 덩굴에 감긴 채 눈시울이 붉다 저 허리 꺾인 것들 아직까지 습한 속눈썹 달고 있는 이유 무엇인가 주인이 구들 떠나 집 나설 때 덩달아 살강까지 까치집으로 빌릴 울긴 저 수저, 녹으로 푸르게 엮혀 있는 걸 보니 알겠다

누군가 떠나보내고도 보내지 못하는 일 뒤결 김나무, 눈물 마른 홍시 보니 알겠다 지붕도 없이 색 바랜 등지에서 허얇게 깃털이하는 저 목숨들 가지 끝에서 석삼년은 글썽이었다 눈시울 붉혀겠다

· 시골집, 위의 책, 10-101쪽, 전문

위 시는 사람이 떠난 후 / 까치가 문과 달고 주인 행세인 / 마당 길은 시골집에는 / 시간의 무게 견디지 못한 나무들 / 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시골집'은 공간적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인에게 이 공간은 낯선 세월의 무게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덩굴에게 자리를 내주고 단 시골집의 하나에 불과하다.

많은 추억과 향이 원천인 시골집이 화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월 저편의 어린 시절에 머물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내재해 있다.

사설

전주 학인당과 서화순 종부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 가옥인 학인당은 1908년에 지은 집이다. 조선말 효자로 유명한 인제(忍齋) 백낙중(白樂中)이 살던 집이다.

고종 황제는 백낙중이 죽은 후 그 효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의 호 인제(忍齋)에서 '인(忍)'자를 따서 집 이름을 '학인당(學忍堂)'이라 붙이게 했다.

백낙중은 국악과 소리를 좋아했다. 마루에서 소리 공연을 할 수 있게 설계 때부터 천장을 2층 높이로 하고 공간은 넓게 했다.

덕분에 전주 최초의 공연장으로 사용되었다.

집 지을 당시 있었던 우물을 배우지 않고 석축을 쌓아 보충했다. 지금도 여름이면 댕강고에서 방금 꺼낸 것 같은 시원한 물이 솟는다. 해방 후 백범 김구 선생과 해공 신익희 선생이 이곳에 머물렀다.

한국화기인 남궁, 남전, 소전 선생을 비롯 서예가 호산, 강암 선생 및 국악의 대가들의 주 무대였으며 교류의 장소로 유명하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 초이(이병헌 분)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찾았던 고택이기도 하다.

<학인지려(學忍之間)>라는 말은 '학인당의 문의 모습'을 말한다.

배울 학(學), 어질 인(忍), 감지(之), 이문 려(閨)로 학인당(學忍堂)을 가리킨다.

이문 려(閨)는 원래 마을의 문을 말한다.

중국 주(周)나라 제도에 25가구를 이(里)라 하고, 이(里)에는 반드시 문이 있는데 이를 려(閨)라 하였다.

1970년대 초 삼성그룹이 학인당을 통째로 뜯어 용인 민속촌으로 이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거래를 제시했다.

그러나 고 백남혁씨가 단호하게 물리쳤다.

고 백남혁씨는 현재 학인당 관리자 백광제씨의 증조부이다.

백광제씨는 수원백씨 인제공파 전주 문종의 종손이다.

학인당은 서화순 종부(宗婦)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종부는 2018년 들어서면서 일선에서 은퇴했다. 아들 부부에게 살림을 물려준 것이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홍규철 회장의 외침

전북 도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때문이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홍규철 회장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까지 정부 지침에 따랐지만 이젠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보다 피해 자체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규제를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길거리에 나왔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해 좀 더 장사할 수 있고, 몇 명이라도 더 모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미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었다.

외식업은 물론 숙박업과 이벤트, 광고사, 여행사 등 많은 소상공인들의 직장이 누적되고 있다.

이들은 일단 정부의 방침을 따라 행동하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좀 더 버텨보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지난해에 받은 대출도 이자와 임대료 등으로 다 나가고 고스란히 빚만 떠안게 된 실정이다.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는다 해도 개인 신용 등급을 따져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준다.

정작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금리 대출이다 보니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대거 신청해 자금만 많이 풀렸을 뿐이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만 해 놓고 받지 못한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권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1차로 비워두기의 '킵 라이트 (Keep right)

민원실에서 근무하면 지정차로 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에 단속되었다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1992년 건설 당시 1만 3천km였던 독일의 아우토반은 전체 길이 절반 정도가 속도 무제한이며, 12톤 이상 화물을 제외하고 이용료가 무료이다.

아우토반에서의 사망자 수는 1990년 1,470명에서 2013년 428명으로 70% 감소하였으며, 부상자 수는 동 대비 2만 7,443명에서 1만 8,452명으로 33%가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1만 명당 0.7명으로 한국 2.4명의 1/3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 중부 상행선 1차로를 이용하여 앞차를 추월하는 66대 중 2차로로 복귀한 차량은 5대뿐이었으나, 독일은 1차 로로 진행하던 17대 중 10대가 1차로 추월 후 2차로로 복귀하였다.

독일 교통당국은 '1차로 비워두기'의 '킵 라이트(keep right)'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왜 땡 풀린 1차로를 비워두는가?" 질문에 건넌목을 건너지 않는 것만큼

운전자의 몸에 배었다는 독일연방도로연구소의 케르스틴렘케 박사의 연구 결과가 있다.

독일 경찰은 아우토반에서 법규 위반차량 발견 시 위장 경찰차가 지붕 위에 푸른 경광등을 얹고 'STOP' 팻말을 차량 밖으로 빼들고 단속한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에서 시작하여 일반도로까지 암행순찰차의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난폭운전과 보복 운전이 감소하였음을 체감한다.

아우토반에서 추월할 때 추월하려는 차보다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으면 벌금 80유로(약 10만원)이며, 화물차 두 대가 맞붙은 차에서 45초 이상 비슷한 속도로 주행 시 벌금 20유로(2만 3천원)를 부과한다.

단속이 미비하면 호수의 물이 탁해지지만, 교육이 부족하면 물 전체가 썩는다'는 말이 있다.

오늘의 아우토반 질서는 위장 경찰차가 사소한 위반행위까지 엄하게 단속한 결과이다.

1차로! 잠시 비워두셔도 좋습니다 ~ ~!! 전근수 무주경찰서 민원실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용산 수지 사진 들고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



18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아용산 수지 교문의 사진을 들고 전경과 대치하고 있다. 전날 시위대 수만 명이 군대의 폭력 진압 일시에도 불구하고 양곤 거리로 쏟아져 나와 최대 규모의 시위를 펼쳤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